

농어촌公 공주시사, 계약업체와 청렴소통간담회 가져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5.08.21 13:35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사장을 비롯한 계약·사업 담당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청렴계약제도, 반부패신고제도 안내 △현장관리 개선의견 공유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 논의 했다.

박재근 지사장은“최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

농어촌공 공주시사, 계약업체와 청렴소통간담회 개최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고중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8-21 10:21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20일 계약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사장을 비롯한 계약·사업 담당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렴계약제도, 반부패신고제도 안내 ▲현장관리 개선의견 공유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박재근 지사장은 "청렴은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주시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계약업체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신뢰기반의 협력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공주=고중선 기자

농어촌公 공주시사, 계약업체와 청렴소통간담회 개최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5.08.21 11:41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청렴 소통 간담회 사진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21일 계약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 and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사장을 비롯한 계약·사업 담당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렴계약제도, 반부패신고제도 안내, 현장관리 개선의견 공유,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이 논의 됐다.

박재근 지사장은 “청렴은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

농어촌公 공주시사, 계약업체와 청렴소통간담회 가져

✎ 김태영 기자 | ⓒ 승인 2025.08.21 14:15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렴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공주시사 제공.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계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 and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계약·사업 담당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청렴계약제도, 반부패신고제도 안내, 현장관리 개선의견 공유,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통해 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계약업체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김태영 기자 taeyoung3000@ccdn.co.kr